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33.25	↑ 코스닥	794.19
	(+29.49)		(+19.77)
↓ 금리 (미국 9년)	3.857	↑ 환율 (원-달러)	1328.90
	(-0.020)		(+3.80)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개선안 마련때까지
금지할 것”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해운업 불황에 LX 불참 가능성 매각 힘로 HMM, 유찰설 ‘솔솔’

HMM 매각 본입찰 23일 실시
해운운임 저점에 불확실성 고조
LX그룹은 ‘인수 포기’ 소문도

하림-동원 2곳, 인수 강력 의지
실탄확보 위해 지분처분 등 분주

HMM 매각 본입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인수 후보가 잡히지 않는 상태다. 여기에 해운 운임까지 저점을 찍어 매각 불확실성이 고조돼 HMM 매각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HMM 인수 후보자들의 실사 작업은 완료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MM 매각 본입찰은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당초 하림그룹, 동원그룹, LX그룹의 3파전이 예상됐지만 뒤늦게 뛰어든 LX가 HMM 인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운 운임 하락으로 인한 상황·실적 악화 탓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LX그룹 측은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인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LX그룹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져 산업은행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중도

하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HMM 인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곳은 하림과 동원 두 곳으로 좁혀졌다.

동원그룹은 최근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프리IPO(상장 전 자금조달)를 전제로 CB를 발행하며 현금 마련에 나섰다.

스타키스트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이자 미국 참치캔 시장 1위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993억원, 순이익도 919억원을 기록한 캐시카우다. 전년 대비 약 20%가량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HMM 인수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동원그룹은 동원로엑스, 동원푸드 등 비상장 계열사들의 프리IPO나 동원F&B 사옥 유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원그룹 창립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이 “동원그룹은 바다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이라면서 “HMM 인수는 꿈의 정점”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HMM 인수 의지를 밝히며 있다.

하림 그룹도 김홍국 회장을 비롯해 HMM 인수 의지가 강력하다. 김 회장은 “자금 조달 계획을 완벽히 세웠다”며 “해운 운송부터 식품 제조, 물류까지 사업 밸류 체인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하림 그룹은 실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회사인 팬오션은 보유 중이던 한진칼 지분을 1628억원에 처분하며 적극적인 자금 확보에 나섰다. 또한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매각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8000억원 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하림그룹은 부지 매각에 대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하림그룹은 HMM 인수 전 초기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꾸리며 인수금융 재원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인수자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김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하림그룹을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이번 인수전이 하나의 시험대로 부상한 상태다. 김준영씨는 현재 JKL파트너스에 시니어매니저로서 인수 작업을 돕고 있다.

하림그룹은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HMM 선박 105척과 기존 팬오션이 운영 중인 선박을 더하면 수년 내로 400척이 넘는 선단을 확보하게 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채소 물가 점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비리·부실 얼룩’ 새마을금고 전문 경영인 도입 등 대수술

중앙집권 분산 경영대표이사직 신설
중앙회장 보수 줄이고 4년 단임제로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합병한다. 지배구조 혁신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의혹과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수수 혐의 등 잡음이 이어지자 중앙회가 쇄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뿐 아니

라 국민 신뢰를 함께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앙집권체제를 해소할 위해 ‘경영대표이사’ 직을 신설한다. 전문성을 골자로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대표이사는 금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며 역할 또한 대외활동 업무 및 ‘이사회 의장’ 기능에 한정한다. 중앙회장의 보수는 23% 줄인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적용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이사직을 새로 창설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 아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이어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한다. 부동산·건설업에 관한 업종별 여신한도는 각각 30%, 50%로 확대한다.

<2면에 계속>

/김정산 기자 kimsan119@

LG家 대이은 야구사랑, 구광모 회장이 결심

구 회장, 유광점퍼 입고 잠실 찾아
승리 확정 후 선수들과 함께 환호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야구장에서도 폭심을 이어가며 29년만 프로야구 LG트윈스 통합 우승 기쁨을 함께 나눴다.

구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 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을 관람했다.

이날 경기는 올해 리그 우승 LG트윈스가 포스트시즌에서 올라온 KT위즈를 상대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기까지 단 1승만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LG트윈스는 KT 위즈에 6대2로 승리,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구 회장은 이날 차명석 LG트윈스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 승리가 확정된 후에는 경기장으로 내려와 선수들과 함께 환호하고 축하 발언도 했다. 기념 촬영과 세레모니 후에는 선수들에 행가례를 받았다.

구 회장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선수들과 함께 뒷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LG트윈스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직접 음료를 꺼내는 구 회장 사진이 공유됐다.

재계는 구 회장이 한국시리즈에 한두차례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해왔다. 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실

리주의를 앞세워 좀처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칫 결과가 나쁘면 원망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구 회장은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4차전에 훨씬 밝은 모습으로 경기를 관람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LG트윈스가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팽팽한 전력으로 패배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 구 회장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다른 팬에 사진을 찍어주는 등으로 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LG트윈스는 이날 15대 4라는 큰 점수 차이로 대승을 거뒀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윤 “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위협… 북, 도발시 한미동맹 즉각 응징”
▲장재원 “서울 안간다”에 황보승희 “알량한 정치 혼자 하리라” **/사진 뉴시스**

▲민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릴레이 피케팅 돌입
▲광주 찾은 김동연 “김포 편입, 지방 죽이기·선거용 속임수”



▲여당, 야 ‘한동훈 거냥막말’에 “참담한 심정… 이성 되찾길”
▲민주 “김건희 특검, 국민 60% 찬성… 여당 응담해야” **/사진 뉴시스**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근본개선안 마련 때까지 금지”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불법 공매도 더이상 방지하면
주식시장 공정가격 형성 어려워”
현장중심 행정·정책 등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보다 철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

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것(공매도 금지)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찾았던 신촌 탄우홀 미팅, 대구 철성시장 방문,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풀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금지, 오염수 과담에 따른 수산시장 상인들의 정부 대책과 외식업계 외국인력 도입 요청 등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 개정과 고용세습, 채용 감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길 바란다”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내부통제시스템 원점서 전면 재검토하라”

금감원, 책임자들과 간담회
올 증권사 금융사고 668억 ‘역대최고’
위법 방조·은폐, 소홀한 책임 물을 것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감사와 준법감시인, 최고리스크책임자(CRO)까지 소집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부문에 대해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36개 국내 증권사의 감사와 준법감시인, CRO 등 내부통제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및 횡령까지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금융사고 예방과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14건, 668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금융사고 규모 143억원을 크게 웃돈다. 사금융알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과 같이 사고유형도 다양해졌다.

황 부원장보는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누락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행위를 방조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감사와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와 기업금융 등 IB 부문에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만큼 IB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황 부원장보는 “최근 IB 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IB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CFD와 영풍제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손실규모는 완전히 달라진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환율 상승 영향... 수출물가 4개월 연속 ↑

한은, 10월 수출입물가지수
원화기준 올랐지만 계약기준 하락

수출물가지수가 4개월째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환율효과가 나타난 덕분이다. 원화기준으로는 상승했지만, 계약기준으로는 하락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회복세를 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119.62) 대비 0.5% 상승한 120.17로 집계됐다. 수출물가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상승했다.

수출물가가 상승한 건 환율이 오른 영향이 컸다. 원화기준으로는 0.5% 상승했지만, 계약통화기준으로는 1.0% 하락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50.69원으로 전월(1329.47원) 대비 1.6% 상승했다.

지난달 공산품의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4.9%), 제1차금속제품(-0.8%)이 하락했지만, 반도체가속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6%)와 운송장비(1.7%)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농림수산물도 과일(-8.0%) 등을 중심으로 0.7%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0.38로 전월(139.71) 대비 0.5%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소폭하락했음에도 환율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9.75달러로 전월(93.25달러)와 비교해 3.8% 내렸다.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0.5% 상승했지만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5.6% 하락했다.

수입물가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중간재의 경우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0%), 화학제품(1.1%)이 오르며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원재료는 광산품(-0.5%)을 중심으로 0.4%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4분기 ‘해운 비수기’... 시황반등 어려워

» 1면 ‘해운업 불황에 LX’서 계속

하림그룹이 HMM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굴지의 컨테이너선사와 벌크선사를 가지는 기업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인수자들의 의지와 바람과는 달리 해운 시황은 밝지 않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7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1%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6.4% 급감한 954억원이다. 타

글로벌 선사 대비 견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4분기는 해운 비수기인만큼 시황 반등을 바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어떤 곳이든 운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이용해 HMM을 품게 될 텐데 해운운임이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승자의 저주’는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기에 LX그룹까지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찰 가능성이 커질



HMM의 초대형 컨선 알헤시라스호. /HMM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연체율·대형금고 등에 감사역량 집중”

» 1면 ‘바리·부실 얼룩 새미’서 계속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 금고지도·감독 기능을 보강한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고연체율 등의 사유로 경영개선

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나선다.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최대 0.2%까지 확대한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재택’ 줄이는 산업계... 거점 오피스로 효율성·집중도 높인다

상위 50대 기업 재택근무 조사
응답 기업 31곳 중 58% 시행
사내 자율·유연 근무제 운영
원격근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삼성전자 거점 오피스인 서초 딜라이트.

코로나19로 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부터 국내 기업들까지 재택근무(원격근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거나 근무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며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31곳 중 58.1%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미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41.9%로 조사됐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38.7%에 달했다.

실제 한화그룹은 올초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한 후 정보통신 부문 등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했다. 현대차 그룹도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대차는 계동과 대방, 동탄, 삼산, 성내, 안양, 원효로, 의와, 판교 등 총 9곳에서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며 근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19년 10월 타운홀 미팅에서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율성”이라며 “대면보고 문화는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마주 앉아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을 제발 하지 말자, 효율적이면 서 빠르고 뜻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라”고 업무 효율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삼성도 모성보호(임신상태, 출산 직후 등) 인력에 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은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문화를 위해 사외 거점 오피스와 사내 자율 근무존을 운영한다. 삼성전자의 사내외 유연근무공간 ‘딜라이트’는 ▲서초사옥 ▲대구 ABL타워 등 사외 거점 오피스 2개소와 ▲디지털시티(수원) ▲서울R&D캠퍼스(우면) ▲스마트시티(구미) ▲그린시티(광주) 등사

업장 내 자율 근무존 4개소를 포함해 총 6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SK는 재택근무를 최소화하면서 계열사별로 직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SK,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직원이 매일 아침 일할 좌석을 예약해 사용하는 ‘공유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출·퇴근 소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도립, 일산, 분당 등에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하는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근로시간과 장소, 복장까지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원격근무시스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서울지역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피로도를 저감시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장점이 확인된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With POSCO Work Station’ 거점오피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여의도파크원타워, 종로 금세기빌딩, 판교 포스코DX사옥, 송도 포스코타워 4개 지역에 위치한 ‘With POSCO Work Station’ 은 1인용

몰입좌석, 다인용 라운지, 회의실 등 다양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직무 특성에 따라 원거리 근무가 가능한 포항·광양 직원들도 거점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코어 근무 시간 없이 8~17시중 하루 최소 4시간만 근무하면 되도록 했다. 포스코는 올해 7월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자율복장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내 소통이나 근태 관리 등에 한계도 있다”며 “대부분 기업들이 거점 오피스 등을 활용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확대해 임직원 만족도와 업무 능률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통업계 ‘부산 유치’ 힘 보태기 포스터·현수막 등 막판 총력전

식품·백화점·대형마트 움직임 활발
부산시 마스코트 ‘부기’ 활용 홍보
과자·케이크에 캐릭터 넣어 응원

오는 28일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식품,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다.

구전효과가 뛰어난 국내 소비자들의 강점을 내세워 부산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롯데가 가장 적극적이다. 롯데는 유통 관련 전 계열사가 부산 유치 염원에 뛰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롯데웰푸드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며 ‘롯데 빼빼로와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해주세요’ 댓글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롯데웰푸드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댓글로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계정을 태그하고 응원 메시지를 달면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빼빼로를 증정한다.

롯데 계열사인 세븐일레븐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탠다.

세븐일레븐은 보다 많은 고객들과 함께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11월 중 고객이 편의점을 가장 많이 찾고 봄비는 빼빼로데이 시즌에 맞춰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응원 메시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초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전국 1만4000여점에 배포해 점포 외부에 부착토록 했다. 포스터에는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응원 문구와 부산 대표 캐릭터인 갈매기 ‘부기’가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식품업계에서는 파리바게트가 색다른 방법으로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SPC그룹의 파리바게트는 부산시와 손잡고 신제품케이크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 나선다.

파리바게트는 부산시 마스코트인 ‘부기’ 캐릭터를 활용한 ‘부기 케이크’를 한정 출시한다. 부산과 경남지역 소재 파리바게트 매장 400여곳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SPC와 부산시는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후 향후 전국 판매까지 고려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부기’ 케이크는 부산의 여름 바다에 빠진 부기를 모티브로 만든 초코 케이크다.

/최빛나 기자 vitna@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이 되기 위해

치매와 싸우는 당신 곁에서 언제나 힘을 주는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화생명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무배당)

080.365.6363

www.hanwhalife.com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4104호 (2023-09-05 ~ 2024-09-04)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3-08-103

한화생명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무배당)

080.365.6363

치매 보장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계좌에 대한 상환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4104호 (2023-09-05 ~ 2024-09-04)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3-08-103



전폭적 육성, 과감한 기용... 구광모의 '선택과 집중' 통했다

〈LG그룹 회장〉

‘LG’ 이름, 야구단에서 먼저 사용
구광모 회장 2019년 구단주 취임
승률 5할 이상 지키며 우승 노크
따뜻한 무관심 속 지원 아끼지 않아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한국시리즈(KS)' 5차전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LG 트윈스가 6대2로 승리하며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LG트윈스가 29년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면서 LG그룹도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럭키 금성이 아닌 LG라는 이름도 야구단인 LG트윈스에서 먼저 썼을 만큼 LG그룹에서 야구단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트윈스가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과감한 선택 집중으로 강팀으로 거듭났고, 결국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고객 만족'을 통해 팬들도 결집시켰다.

◆ 가을 야구 단골로

LG트윈스는 구 회장이 구단주로 취임한 2019년부터 승률 5할 이상을 지키며 우승을 노크해왔다. 이전에 승률 5할을 넘긴 것은 마지막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던 2002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과 2016년 두차례에 불과했다. 정규리그 순위도 4위 2번과 3위, 2위로 '가을 야구'로 불리는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진출했다.

‘프론트 야구’로 유명했던 LG트윈스지만, 구 회장이 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구 회장은 구단주로 취임하고도 당시 LG스포츠 사장이었던 이규홍 대표에 대행을 맡겼으며, 2021년에는 KBO 총재를 역임했을 만큼 야구 전문가로 꼽히는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을 구단주 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한 전사적인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취임 직후 지주사에 만들었던 전장사업 총괄 조직이 대표적. LG그룹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미래 사업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LG를 기준으로 LG스포츠 매출은 2018년에 50억원에서 2019년 85억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2020년에는 152억원, 2021년에는 136억원이었다. 프로야구 관람이 재개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2022년에서야 지원을 줄였다.

구 회장은 LG그룹에서도 '따뜻한 무관심'으로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한 바 있다. 구 회장은 계열사별 자율성을 중시해 연례 행사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통해 계열사들이 자립 능력을 강화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한 전사적인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취임 직후 지주사에 만들었던 전장사업 총괄 조직이 대표적. LG그룹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미래 사업으로 거듭났다.

◆ 선택과 집중

LG트윈스가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전폭적인 육성과 함께 과감한 트

레이드와 기용을 이어가며 전력을 가다듬었다.

일단 투수진은 자체 육성에 집중했다. 임찬규 선수를 비롯해 고우석과 정우영, 이정용 선수 등이 LG트윈스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했다.

수비진은 철저한 능력주의로 경쟁을 유도했다. 외야수인 김현수와 박해민 선수는 외부에서 FA로 영입, 대신 가능성을 보였던 홍창기 선수를 적극 기용하면서 1번타자를 육성하는데도 성공했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오지환 선수조차도 여러 선수들과 경쟁을 이어왔다.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외야수 채은성과 포수 유강남 선수를 FA로 보냈다. 외인 투수인 플랫코 선수가 부상으로 한국시리즈 진출이 불투명해지자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강수도 뒀다.

그러면서도 믿음은 잃지 않았다. 외인 투수인 켈리 선수가 시즌 초 다소 부진했음에도 꾸준히 기용하면서 결국 한국시리즈 우승을 만들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 1면 'LG가 대이은 야구사랑'서 계속

헤리티지벤처스, 대규모 현수막... '왕의 기운' 담아 응원

본사 건물 전체 응원 현수막 설치
우승 대비한 현수막도 미리 제작



'헤리티지벤처스'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 건물에 LG트윈스를 응원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1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LG 트윈스가 KT 위즈에 6대2로 승리했다. 이로써 LG 트윈스는 4승을 해 29년 만의 우승을 차지했다.

“명당의 기운이 LG 트윈스 선수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이재혁 헤리티지벤처스 공동대표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우승 소감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헤리티지벤처스는 최근 본사 건물 전체에 LG트윈스를 응원하는 대규모 현수막을 설치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헤리티지벤처스 건물 앞을 매일 지나 다니는 가까운 동네 주민들을 비롯해 일부러 찾아와 기념사진을 남긴 야구팬들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SNS 상에

서도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 자리는 세종대왕이 나신 곳”이라며 “왕의 기운을 담아 LG 트윈스를 응원했는데 주변 이웃들도 좋아해주시고 관광객으로 인해 상권이 활기를 찾아 상생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번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지난 1990년과 지난 199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내가 힘들면 LG도 힘들었고, LG가 힘들면 나도 힘들었어요.”

이 대표는 29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LG를 응원한 원년 팬인 만큼 그는 이번 현수막 설제에도 LG의 원년 로고를 넣었다.

무엇보다 우승을 대비한 우승 현수막도 미리 제작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

과감히 선수 믿고 응원

특히 13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승기를 잡은 후반에서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느때처럼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자리를 지켰다. 패배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대신, 과감하게 선수들을 믿고 응원하는 길을 택한 것. LG 내부에서도 구 회장 직관 가능성에 ‘우승을 해야’라고 전망했지만, 구 회장은 뜻심으로 결국 ‘우승 요정’에 등극했다.

구 회장은 우승 후 발언에서도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준 팬과 선수단, 스태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광을 돌렸다.

/김재웅 기자

시민중심
덕큰 파주

제2기 파주장단콩축제

2023.11.24.(금)~26.(일)
파주 임진각광장

PAJU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nergy**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 픽처입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분산발전 #전기차 충전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솔루션 #Mobility #Platform

작품명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신재생 에너지 직접 생산부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까지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Hi

SK에너지의 **그린픽처**

與 혁신위, 불출마·힘지출마 거부반응에 “내달까지 기다릴 것”

김경진 “조기해체, 최초 형성 때 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해명
인적쇄신 명단작성 검토 논란 부인
김기현 “일부 급발진으로 당 흔들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에 권고한 불출마·힘지출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의 권고에 당내 반응이 없으면서 혁신위가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해체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인 위원장도 14일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지목한 당사자들의 응답을 1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힘지출마 요구에 당사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자 혁신위 조기 해체, 인적 쇄신(불출마) 명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위패봉안소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단 작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이날 4·3 제주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12월 초까지 할 일이 많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원도 “조기 해산의 전

제 조건이 있느냐’는 물음에 “초창기에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었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혁신위가 최초 형성될 때의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혁신위 권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

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저 보고 서울에 가라. 제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혁신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대구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했고,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혁신위 ‘조기 해체설’은 당내에서 반응이 없고, 혁신위가 당내에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 조기 해체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김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이날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

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각에선 혁신위가 인적 쇄신 명단 작성을 검토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이날 정치권에는 지도부, 대구·경북(TK) 중진, 부산·경남(PK) 중진, 충청권 중진 등이 명단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혁신위는 이를 부인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혁신위)가 선거 대책을 맡은 선거(대책)위원회도 아니고 그것(리스트 작성)은 우리에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혁신위가 당내 불출마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도 없었고,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野, 총선용 정책 ‘비판’

윤재옥 “野 법인세 강화, 단세포적 발상”

‘기업 때리기’로 서민 표 모으는 것
법인세 조세 경쟁력 이미 최하위
소득주도성장 환상서 못 깨어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유아적이고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

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

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여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홍익표 “주식 양도세·상속세, 선거용 정책”

최악의 세수상황 더 악화될 것
연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논의 없는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면서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

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완화하며 매출액 5000억원 중견기업까지 기업 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낮춰줬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파탄과 경제 위기 앞에 정부는 어떠한 대응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됐다”며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 효과가 올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김기현, 박정희 생가 방문... “역사 바꾼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
“與, 박 대통령 정신 발전적으로 계승”
대구·경북 보수층 결집에 힘 쏟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박 전 대통령이 새로 태어나게 한 도시”라며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산업 단지로 지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울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송모제례’ 행사에서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에 공업 단지 건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박 전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나.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시절에 공업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역사적 결단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당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이념과 공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미래 비전으로 국가를 도약시키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오늘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었던 박 대통령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통 보수, 합리적 보수의 맥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박정희 정신으로 박정희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계승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

구·경북(TK)과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TK지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는 만큼, 내년 총선 전 ‘집토끼’ 민심을 먼저 다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도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박 전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며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리더십을 승계해 당당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 전 대통령 서거 44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지난 7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에 재회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KYO
WON 교원

wells



가지고 싶고 키우고 싶은
나의 감성 레시피

FLORIN



보험사, 혁신상품 경쟁 '배타적사용권' 봇물

올해 배타적사용권 총 18건 획득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부담 높아
상반기 수익·건전성 관리 등 집중
안정화 후 하반기에만 12건 달해

최근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 올해 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신상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독점 판매를 위한 경쟁 태세에 돌입한 모양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최근까지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18건으로 생보·손보 각각 6건과 12건이다. 상반기 6건(생보 3건, 손보 3건)에 불과했던 배타적사용권 획득 실적을 하반기에 크게 늘렸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판매 특허권이다. 생보·손보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 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보험사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아 해당 기간 동안 상품을 독점적



올해 초 IFRS17 도입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보험사들이 하반기 보험 상품 독점 판매를 위한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유도이미지

으로 판매할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생명·손해보험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2020년 26건, 2021년 27건, 2022년 32건으로 증가해 왔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 생보·손보업계 가운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업계는 저조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대해 올해 초 IFRS17 도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새로운 상품 출시 대신 IFRS 17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 등에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기존 계약에 더 신경써야하는 CSM(계약서비스마진)이 중요해졌다"며 "올해는 기존 계약 유지 관리에 집중하느라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기 부담스러워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증가하면서 독점 판매 경쟁이 본

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증가하는 추세다. 벌써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사들은 총 12건(생보 3건, 손보 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10월 'KB 최선의선택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어 삼성화재도 지난 7일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는 IFRS17 적용 후 보험사들이 점차 안정화를 이루면서 신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그 이상으로 상품의 독점적 판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며 "IFRS17 안정화 후 보험사들은 판매확대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하나카드

18일 0시~18시까지 일부 서비스 일시중단

하나카드가 시스템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

◆ 18일 밤 12시~오후 6시 서비스 일시중단

하나카드는 시스템 보강에 따라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 및 일부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8일 밤 12시부터 3시간 동안 결제 승인 시스템을 중단한다. 모든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 체크·선불·기프트카드 이용 및 하나머니 앱 사용을 제한한다.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실물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트래블로그의 경우 신용결제 방식은 중단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외화 하나머니 결제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로는 밤 12시부터 6시간 중단한다. 다만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현금서비스 출금은 낮 12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LG트윈스 우승 기념 한정판 특별카드 발급

신한카드가 LG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 추첨 통해 '메탈 플레이트' 제공

신한카드는 LG트윈스를 응원해 준 팬들을 위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승 엠블럼이 각인된 한정판 'LG트윈스 신한카드'를 발급한다. 신용·체크카드를 각각 2900명에게 선착순 제공한다. 오는 16일부터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G트윈스카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8명에게 'LG트윈스 3종 메탈카드'를 선물한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내달 15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공지한다.

LG전자 제휴카드회원을 위한 행사도 단행한다. 오는 17~20일까지 '뉴 LG전자베스트샵 플러스 카드'로 LG베스트샵에서 1000만원 이상 결제고객 대상으로 마이신한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KB국민카드

해외여행객·직구족 최대 25만 포인트리

KB국민카드가 해외여행객 및 직구족을 위한 비용 절감 행사에 나선다.

◆ 해외여행·직구 수수료 할인 선택

KB국민카드는 해외 결제 수요에 맞춰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비자,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이용수수료를 포인트로 환급한다. KB페이 앱에서 응모하고 11월 말까지 해외이용금액이 합산 30만원 이상이면 이용금액의 최대 25만 포인트리를 적립할 수 있다.

해외 사용 빈도가 낮은 사용자가 해외에서 20만원 이상 사용하면 모바일 상품권(3만원)을 선물한다. 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 결제 내역이 없어야 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예금 만기 고객 잡아라... 지방은행, 수신경쟁 본격화

은행들, 우대금리 앞세워 고객유치
지방은행, 저축은행 견줄 금리 적용
전북銀 최대 4.37% 1금융권 '최고'

은행들이 수신(예금·적금 등)을 통해 고객의 돈을 맡는 영업 행위)경쟁에 나서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4%대를 웃돌고 있다. 지방은행은 '우대금리'를 앞세워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4%대 고금리 상품을 통해 고객 재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저축은행 이자율에 견줄 만한 최고금리 4.2% 전후의 예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신 경쟁에 적극적이다.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현재

제1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38개 상품 중 최고금리가 4% 이상인 상품은 19개(50%)였다.

은행 형태별로는 지방은행이 9개의 4%대 예금 상품을 판매해 가장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특수은행(NH농협·Sh수협) 상품이 4개로 뒤를 이었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상품은 3개에 그쳤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과 SC제일은행도 각각 2개와 1개의 4%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리 조건에서는 은행 형태별로 차이가 났다.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WON플러스 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신한은행 '솔직한 정기예금' 등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다른 우대금리 조건 없이 6개월~24개월 만기에 최고금

리를 제공한다. 세 상품 모두 최고금리는 4.05%로 동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정기예금 상품도 조건 없이 만기 구간에 따라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은 6개월~12개월 만기에,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2개월~36개월 만기에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두 상품 모두 최고금리는 4.00%로 동일했다.

반면 지방은행은 우대금리 조건을 통해 장기간 거래·반복 거래를 유도하며 '충성고객' 확보에 나섰다.

전북은행이 판매하는 '전북은행 1·2·3예금'은 기본금리 4.07%에 더해 12개월 만기 후 재가입 시마다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최대 3회까지 중복 적용한다. 최고금리는 4.37%로 제1금융권에서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 3분기 당기순익 132억... 전년비 48% 뚝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
수신 잔액은 17.2조... 28% ↑

케이뱅크가 3분기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케이뱅크는 14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년전(256억원)과 비교해 48.4% 감소한 수준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다만 중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며 연체율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린 것이 순이익이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뱅크가 3분기 적립한 충



당금은 약 630억원으로 전년 동기(321억원) 대비 96%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분기 케이뱅크의 수신 잔액은 17조24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했다. 생활통장과 코드K정기예금 등 금리경쟁력을 앞세운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가입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우건설 증축형 리모델링 '특화평면' 리뉴얼

대우건설이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특화 평면'을 리뉴얼 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넘은 단지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을 받으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리모델링사업에 도입할 4가지 타입의 특화평면을 자체 개발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리모델링 상품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 작년 개발한 특화 평면을 리뉴얼했다.

/김대현 기자 kdh@

“혁신 위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선행 기술연구 매진”

SAMSUNG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3

AI모델 ‘삼성 가우스’ 구체적 소개
다양한 상황서 최적화 언어 선택
한국어 넘어 영어·중국어 등 지원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만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를 논의했다. 최근 발표한 생성형 AI인 ‘삼성 가우스’와 함께 타이젠 ‘리부트’를 선언하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코리아 2023’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SDC는 삼성전자가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행사다. 개발자들이 최신 IT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I ▲스마트싱스 ▲헬스케어 ▲갤럭시 제품/서비스 ▲전장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별했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인 전경훈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추구하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 정재연 부사장이 스마트싱스를 발표하는 모습. /SDC 코리아 2023 중계 캡처

는 혁신은 항상 고객 경험으로 출발하며 최고의 고객 경험은 사용자의 니즈를 알아서 맞춰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선행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개발자들에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삼성전자 개발자들이 직접 연단에 서서 ▲언어 ▲코드 ▲이미지 등 세 가지 모델과 함께 개발 과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했다.

삼성 가우스 언어 모델은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통해 언어 모델을 학습해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크기의 언어 모델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도 지원한다. 라이선스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했으며, 온디바이스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외부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지도 않는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 코드 모델을 활용한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최근 선보인 푸드 ‘지식 그래프’ 기반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기술을 제시하며 업무 효율 향상 기대와 함께 개발자들이 생태계에 참여해달라는 당부

도 빼놓지 않았다.

모바일 갤럭시 특징점도 강조했다. 퀵웨어와 갤럭시 스튜디오, 아동 계정 등으로 편의와 확장성을 높인 ‘원 UI’를 소개하고 개발자들에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스마트태그2와 연동할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 스마트태그2를 증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OS인 타이젠 ‘리부팅’도 선언했다. 이미 타이젠이 여전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전을 통해 가전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CE 기계에 최적화했으며, 개방형 특징으로 빅스비 등과 연동해 저가형 기기까지 온디바이스AI를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C 등을 비롯해 성장하는 리스트를 지원하는 등 개발자 편의를 제고하고 새로운 그래픽 엔진을 탑재하는 등 성능 개선 계획도 밝혔다.

이어서 ‘삼성의 플랫폼과 개방형 협력’을 주제로한 발표에서는 ▲스마트싱스 개방형 플랫폼 기반 스마트홈 경험 강화 ▲AI가 소프트웨어 보안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미래 이동통신 기술 ▲기술 혁신을 위한 삼성의 오픈소스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그밖에도 ▲스마트싱스의 연결 경험 개선을 위한 솔루션 ▲비전(Vision) 기

반 의류 정보 인식 기술 ▲갤럭시 워치의 헬스 센서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 ▲타이젠(Tizen) 8.0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흥미로운 기능 등 총 15개의 세션도 마련했다.

SDC 코리아 2023은 둘째 날 ▲카메라 기반 원격 광학류측정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헬스케어 서비스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 중단 없이 클라우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한 전장 소프트웨어 ▲의료 분야의 데이터와 AI 기술 적용 ▲‘오소리(Open SOuRce DB Integration, OSORI)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한 오픈소스 협력 계획 등 총 20개 세션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발표자들을 공개 모집해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SDS, 카카오, 현대자동차, 아주대학교의료원, LG유플러스 등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SDV로 차량개발 근원적 패러다임 전환”

현대차그룹 ‘HMG 개발자 컨퍼런스’
SDV로의 대전환 비전·방향성 제시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대 모빌리티 분야 개발자 축제인 ‘제3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의 대전환이 가져올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HMG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 현장에 외부 IT 개발자, 대학생, 투자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SDV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외부에 공유하고 SW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꾸준히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는 ▲SDV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AI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현대차, 기아, 포티투닷,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버, 현대케피코, 현대트랜시스, 현대엔지니어링, 모셔널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대차·기아 SDV본부와 포티투닷을 총괄하는 송창현 사장은 SDV 개념과 앞으로 진행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방식 전환, 그리고 SDV를 통해 고객이 누리게 될 차별화된 경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송 사장은 “SDV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개발 방식을 차량 개발에 적용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3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송창현 사장(왼쪽부터), 유지한 전무, 마이클 세비딕 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상근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하는 ‘개발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차량 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물론 편의 기능, 안전기능, 그리고 차량의 브랜드 정체성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기아 자율주행사업부 유지한 전무의 발표에서는 원격 자율주차(RPP, Remote Parking Pilot) 개발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실제 개발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현실로 반영되는 과정을 공유했다. 원격자율주차는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차가 알아서 빈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또 차를 호출하면 탑승객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주차타워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제네시스 GV80이 하차 구역에서부터 스스로 빈 공간을 탐색한 뒤 안전하게 주차를 완료한다. 이후 사용자가 승차 구역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이 해당 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지한 전무는 주차타워의 정밀지도와 축위 정보를 기반으로 원격 자율주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운전자가 주행 및 주차했던 경로를 기억해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억 주차 기능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한 전무는 “현대차·기아는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라는 개발 철학 아래 운전자는 물론 도로 위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일류화 달성을 위해 대외 개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글로벌 협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마이클 세비딕 엔지니어링 부사장의 무인 로보택시 기술에 대한 발표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상근 교수의 인공지능 주제의 특강 등 외부 전문가의 발표도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오일뱅크, 美 서부까지 수출 확대

SUNOCO社와 장기공급계약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SUNOCO社와 내년 석유제품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7월 하와이에 석유제품 완제품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휘발유·경유를 직접 수출해 왔다. SUNOCO社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포함 전세계 유통망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계약 물량은 연 360만 배럴 이상으로, 기존 하와이에서 미국 서부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와이, 알래스카, 괌 등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승수 글로벌사업본부장은 “SUNOCO社와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3년 연속 장기계약이 성사됐다”며 “앞으로 미국 본토로 휘발유 공급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전통적인 아시아 시장을 넘어 지속적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다. 2013년 거래를 시작한 뉴질랜드에는 연 7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대 미국 수출 비중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포스코DX, 코드재활용 개발자 편의성 향상

로봇자동화에 챗GPT 적용

포스코DX가 로봇자동화(RPA) 솔루션 에이웍스(A.WORKS)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결합해 개발 편의성을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RP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코딩)해야 하는데, 챗GPT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작성된 코드를 불러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포스코DX는 챗GPT 화면을 별

도로 열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스크립트 작성 화면에서 바로 코드를 불러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사용자가 작업을 진행할 때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RPA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포스코DX는 최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에이웍스 솔루션에 담기 위해 RPA 솔루션 파트너사 개발자 대상으로 ‘2023 A.WORKS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에이웍스를 적용해 RPA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하나금융데이터, 신세계아이앤씨 등 파트너사 개발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게임신작 ‘우르르’... 불꽃놀이부터 드론쇼까지 볼거리 ‘풍성’

지스타2023 개막 D-1

해운대해수욕장 중심 퍼포먼스 유명 인플루언서들 직접 플레이

위메이드 가수 청하 무대 초청
엔씨소프트 ‘플레이 엔씨’ 진행
넷마블 신작 3종 현장 이벤트

지스타2023를 이틀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게임사들이 선보이는 신작들 뿐 아니라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백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2023에는 불꽃놀이, 드론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이 꾸미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 지스타는 코로나 엔데믹과 수능 이후 열리는 최대 행사로 현장에서 거는 기대감이 크다.

우선 올해도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및 위믹스(WEMIX)



지스타 엔씨소프트 부스에 출연을 예정한 인플루언서들. /엔씨소프트

모델인 가수 청하 무대를 준비 중이다. 가수 청하는 오는 18일 오후 3시30분부터 기업 및 소비자 간 거래(BTC) 관 위메이드 부스에 위치한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같은날 오후 8시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라이팅드론과 불꽃 퍼포먼스 등의 즐길거리도 준비했다. 이에 따라 게이머들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됐다.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플레이 엔씨(PLAY NC)’를 진행한다. 엔씨가 올해 지스타에서 선보일 시연작 3종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플레이해보는 코너다. 현장에 방문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엔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PLAY NC 1부에서는 ▲

MC ‘정소림’ ▲캐스터 ‘최광원’ ▲인플루언서 ‘이녕’, ‘김블루’가 신작을 플레이한다. 같은날 오후 3시부터는 ▲MC ‘김효진’ ▲캐스터 ‘박상현’ ▲인플루언서 ‘우정잉’, ‘나너루다’가 무대에 오른다.

데브시스터즈는 구글플레이 부스에서 ‘침착맨’, ‘우정잉’, ‘홀릿’, ‘통닭천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 한 팀이 되어 신작 ‘쿠기런:모험의탑’ 레이드모드를 타임어택으로 플레이하는 인플루언서 대전을 개최한다. 인플루언서 1명과 유저 3명이 한 팀이 돼 상대 팀과 대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네오위즈 자회사 파우게임즈도 신작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이하 영웅전설)를 선보인다. 부스 현장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시연은 물론, 스페셜 사전예약 및 랜덤 캡슐 뽑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여러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영웅전설 퀴즈쇼’ ▲‘영웅전설 최애캐(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 픽’ ▲‘보

스전 스코어 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넷마블은 신작 3종의 게임성을 보여줄 현장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리오네스토벌 대회 ▲페르젠 광산 타임어택 이벤트를 개최한다. 리오네스토벌 대회는 오픈월드 모드에서 정예 몬스터 토벌 등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로, ▲변승주 ▲꾸티뉴 ▲와나나 등 인플루언서들이 팀을 이뤄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지난해에 비해 신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다. 신작 홍보가 골자지만 일반관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많다.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장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韓 고객 생성AI 데이터, 서울 리전에 보관” 카카오택시, 가맹수수료 3% 이하 추진

구글 클라우드 서밋 2023 개최 생성형AI 활용 데이터 보안 우려에 “韓 고객사에 높은 보안 서비스 제공”

한국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구글 클라우드드는 한국 고객사에 대해 앞으로 서울에 마련한 리전(Regions)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높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글 클라우드드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밋 2023’을 열었다.

강형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비즈니스 리더에게 생성형 AI는 신기한 기술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가치 흐름(Value stream)”이라며 “우리 구글 클라우드드는 기업이 AI를 비롯한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을 창출하고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각 기업에 빠른 속도로 여러 변수에 대응한 연산을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많은 단계의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



강형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이 서밋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한국 고객사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구글클라우드

과물 생성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가 추가로 생산되고 해당 데이터가 보안 취약점을 갖기도 하는 등 문제도 안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드는 이날 ‘버텍스 AI(Vertex AI)’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고객사에 대해 글로벌 9개 지정 리전을 포함해 한국 구글 클라우드 서울 리전(Regions)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팜2(PaLM2)’, ‘코디(Cody)’, ‘이미젠(Imagen)’ 등 구글 기반 모델과 텍스트, 이미지 등을 모두 대규모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환시키는 임베딩 API도 포함한다.

국내 리전을 마련해 기업에 제공한 사례는 다국적 클라우드 기업 중 구글 클라우드가 최하다. 국내 리전 사용자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결과물과 연산이 국내 데이터센터에 머물러 보안에 큰 키포인트가 된다.

강 사장은 “한국 기업들의 큰 우려 중 하나는 기업 고유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구글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고 고객이 직접 암호화된 키를 직접 관리하도록 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글 클라우드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드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신청 절차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CSAP 인증은 국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 조건이다.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CSAP 인증을 획득하면 할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T, 5G·위성통신융합 기술 비전 제시

6G 포럼 공식 사이트서 공개

KT가 ‘위성통신의 도심항공교통(UAM) 적용’을 주제로 한 6G 포럼 이슈리포트를 6G 포럼 공식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6G 포럼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민간 합동

포럼이다. KT는 6G 포럼 산하 차세대 모빌리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UAM 안전 운항에 필요한 위성통신 기술 적용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KT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2025년 상용화를 앞둔 UAM에 위성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K-UAM

과 KT 컨소시엄 동향 ▲위성통신 동향과 기술 ▲UAM을 위한 위성통신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위성통신은 5G 항공망과 함께 UAM 기체를 관제하고 승객에게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높은 비용과 전송 속도 문제로 기존에는 항공기와 선박 중심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도 위성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택시 사업 구조 전면 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선다.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택시 업계 대표(한국티블루협의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금선 대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봉균 사무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 한국티블루협의

회 장강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택시단체들은 가맹택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단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가맹 수수료율(계속 가맹금)을 3% 이하로 책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5만명 이상의 기사가 참여하며 구축된 기존 각종 가맹 시스템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맹 기사 부담 최소화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T, AI서버 액침냉각 통해 전력사용 37%↓

차세대 서버 열관리 기술

SK텔레콤(SKT)이 전력 사용량 약 37%를 절감하는 냉각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액침냉각은 각종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 속에 넣어 냉각하는 차세대 열관리 방식이다. SKT가 검증에 성공한 액침냉각 시스템은 효율적인 냉각 효과와 전력 절감 효과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송풍기를 통해 냉각하는 기존 공랭식 시스템과 다르게 전기는 통하지 않고 열전도는 높은 특수 냉각유에 서버를 직접 넣어 냉각하는 유냉식 시스템이다.

공기보다 열전도가 높은 냉각유를 사용해 열을 흡수하고 공기냉각에 필요

한 서버 송풍기를 제거할 수 있어 서버의 전력 절감도 가능하다. 서버 주요 고장 원인인 습도, 먼지, 소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 서버 수명 연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서버 내부의 발열체인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저장 장치 등 시스템 전체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장비 고장도 줄일 수 있다.

SKT는 액침냉각 전문회사인 미국 GRC 설비와 다양한 제조사의 테스트용 서버, SK엔트리의 특수냉각유로 SKT 인천사옥에 액침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공기냉각 대비 냉방 전력의 93%, 서버전력에서 10% 이상이 절감돼 총 전력 37%가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GRAND OPEN
2023.11.17

OPEN EVENT
11.17 - 12.07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0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에 초대합니다.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WINE PICKS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상장사, 출렁이는 증시에 '자사주 소각' 카드 꺼낸다

올 주식소각 결정 공시 90건
고려아연·한섬·네이버·금융권 등
자사주 매입·소각 예고 활발
투자자, 주주환원 정책 관심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상장사들이 주가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연말 배당을 앞두고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어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주식소각 결정 공시는 90건으로 지난해 65건을 넘어섰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주주 환원책의 일환으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내년 5월 8일까지 한국투자증권과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한섬도 내년 2월까지 자기주식 49만



코스피가 전 거래일(2403.76)보다 29.49포인트(1.23%) 오른 2433.25에 마감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74.42)보다 19.77포인트(2.55%) 상승한 794.19,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6.8원)보다 3.8원 오른 1328.9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2600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 73만 8900주를 포함해 총 123만1500주를 내년 2월 안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5%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지난달 31일 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 164만491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5월 향후 3년간 자사주의 총 3%를 매년 약 1%씩

소각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 SK텔레콤, 현대차 등 대형 상장사도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 결정 등을 통해 주가 가치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자사주 소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자사주 484만 5744주, 약 2001억원 어치를 이달 30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소각되는 자사주 물량은 지난해 이 회사가 자회사 합병을 발표하면서 취득했던 물량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에만 이미 세 차례 걸쳐 4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데 이어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다.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

입을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 주식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끌어 올린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보다 뛰어난 주주환원 정책으로도 평가받는다.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16%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상승효과를 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는 상장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온 데다 스튜어디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채택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주주들이 많아졌다”며 “따라서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으로 연결시키는 주주들의 요구는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셀트리온그룹, 주식매수청구액 79억에 그쳐 파두, 주가 급락에도...소통·대응 '0점' 수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각 63억·16억... 반대 주식수 0.19%
재무 부담 줄이며 합병 절차 마무리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양사 합계 총 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집계된 주식은 각각 셀트리온 4만 1972주(약 63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만3786주(약 16억원)다. 양사 합산 주식수 기준 총 합병반대 표시 주식수의 0.19%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합 셀트리온은 재무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12월 28일 출범을 거쳐 본격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 12일 신주 상장까지 진행되면 양사 합병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갖

는 주주가 기업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아질 수록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회사측은 합병 초기 예상을 크게 밑도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합병 이후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의 합병에 대한 시장내 우려도 사실상 완전 해소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양사 합병 성공에 가장 큰 관건이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며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일스톤이 또 하나 달성되면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체 사업 사이클이 일원화됨에 따라 원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공격적인 가격전략 구사가 가능해져, 판매 지역 및 시장점유율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짐펜트라가 미국 내 신약 허가 획득에 성공하고 2025년까지 선보일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과 허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성장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양사는 최근 3분기 실적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매출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 경영 성과가 나타나면서 향후 성장확장성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제품 출시와 파이프라인 개발 및 허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퀀텀 점프를 통한 글로벌 비파마로의 도약도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 세 경 기자
연장 클릭

파두 충격이 쉬이 끝나지 않을 모양새다. 전일 소폭 반등했던 주가는 14일 다시 6.99% 하락한 1만7710원으로 떨어졌다. 한때 2조원을 넘어섰던 시가총액은 8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파두는 전일 A4용지 5장 분량에 달하는 해명글을 내놓았지만 투심은 하루 만에 차갑게 돌아섰다.

시총 1조5000억원의 대어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파두였다. 상장 직후 네이버, 아마존 등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지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랬던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유는 뭤까.

투자자들은 ‘소통의 실패’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무엇보다 화를 키운 건 기업이 매출 공백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지난 8일 파두가 공개한 3분기 누적 매출은 고작 180억원, 상장 당시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15%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5000만원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이 더 컸다.

파두의 상장일은 8월 7일, 이미 3분기 중반을 향해 가는 시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2분기 실적은 7월 말 공개되고, 반기보고서 역시 8월 15일을 전후로 나온다. 회사는 해명글에서 “2분기에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으나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고 다시 구매가 재개되고 신규 고객들이 더해진다”며 3, 4분기 실적이 달성되리라 예상했다”고 했다.

상장 당시 경영진이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는 인지했다는 얘기가. 하지만 파두는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과 공식 I

ROI 진행되던 7월 말,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상장을 허용한 한국거래소와 주판사는 “기업이 밝히지 않는 이상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누구를 믿어야 했던 걸까.

기업의 무성의한 대응도 분노를 키우고 있다. 실적 충격으로 주가가 45% 급락할 동안 회사측 대응은 전무했다. 장문의 해명글을 낸 건 기관투자자 대상 IR 진행 후 4일이 지난 후였다. 파두는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장과의 소통은 0점 수준의 행태를 보여줬다.

시장과의 소통 창구인 IR부서의 대응 역시 낙제점이다. 투자자 A씨는 반나절만에 겨우 연락이 닿은 파두 IR임원에게 어떻게 예상 매출액이 이렇게 빛나갈 수 있느냐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기업이 시장 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A씨는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는 IR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담당자의 적반하장 태도가 화를 키웠다”며 “파두는 지금이라도 IR 담당자를 다시 채용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두 IR 총괄임원은 반도체 기업인 S사와 L사를 거쳐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는 IR 전문가이기보단 반도체 전문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파두가 상장 심사 당시 매출 공백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파두가 실제 법과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충격을 이만큼 키웠다면 이는 IR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꿈을 먹고 사는 이익미실한 기업에게 있어 시장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seilee@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규정화

내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규정화했다.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

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은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을 따라도 된다.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요구절차와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도 마련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먼저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를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다. 해당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중견기업, 경제력 집중 우려없어… 기업집단 규제 예외뉘야”

중견기업·이재정 산자위원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과학기술정책연구 박찬수 박사
“개별기업 아닌 기업군 톱다운 지원”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권중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중견기업은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국가 산업정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기업군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ESG, 가치사슬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협력 분야의 진출을 늘리기위해 중견기업의 역할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객관훈 교수는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객 교수는 “중견기업의 장점 중 하나가 기동성 있게 신기술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기업집단)규제가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곳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다.

2014년 제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견기업 개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보단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중견기업특별법 10년, 기간의 정책변화 및 전망’이란 내용으로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정책은 ‘바텀업(Bottom-up)’ 니즈에 대응하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다운’ 방식의 ‘육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의 역할과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가핵심기술(산업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등 전략적 기술확보와 공급망 관리 등에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산업경쟁력을 선도하기위한 국가 전략적 기술개발(R&D) 사업 가운데 ‘중견기업 전용 트랙’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의 판단을 반영해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R&D(중견팁스) ▲정책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조정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중견 R&D 바우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 재도전사업 등의 정책 아이디어도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5526개사다. 이는 전체 기업수의 1.4%로, 국가 총 수출의 17.7%, 매출의 15.4%, 고용의 13.1%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주관을 맞아 열린 포럼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희망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면서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여성 CEO·미래 경제인 노하우 공유

중기부·여경협, 예산서 통합 워크숍

여성 최고경영자(CEO)들과 미래 여성 경제인들이 충남 예산에 모여 경험, 노하우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4일부터 이틀간 예산 리솜 리조트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여성CEO가 함께하는 통합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미래 세대인 여학생들의 창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배 여성 CEO의 노하우를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사업은 ▲여성 CEO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여성기업 현장체험 ▲미래여성경제인 워크숍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등으로 구성했다.

워크숍은 그동안 학교별로 진행했던 내용의 성과물을 공유유하고 함께 했

던 학생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 등으로 구성했다.

이정환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앞장서서 미래세대인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에는 광주여대, 수원여대,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매향여자정보고,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대전신일여고, 대전여상, 천안여상, 청주여상, 전남여상, 광주여상, 학산여고, 목포여상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여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개 배포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서 기증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3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서 소화기 기증식을 갖고 올해안에 전국 432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총 6340개의 소화기를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기관으로 선정하고 432곳 전통시장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화기가 부족한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협회와 협업해 화재안전점검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동절기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왼쪽)이 대전 중앙도매시장 유장석 상인회장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다.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화기 기증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강신호 “초격차 기술로 세계 물류시장 선도”

(CJ대한통운 대표)

CJ대한통운, 93주년 기념식
354명 장기근속자등 표창 수여
40년 근속 2명 특별휴가 등 수상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가 창립 93주년과 CJ그룹 편입 10년을 맞아 “World Class 기술로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15일 창립 93주년을 앞두고 서울 종로 신사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신호 대표와 경영진 및 수상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종로 신사옥 이전 후 처음으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40년 장기근속자 2명을 포함해 354명의 장기근속자와 우수한 성과를 보인 CJL Awards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19개의 상이 수여됐다. 1983년 입사한 40년 근속자 김성만 지사장 등 2명은 물류의 산증인으로 특별휴가와 상급



CJ대한통운이 서울 종로 사옥에서 연 9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신영수 한국사업부대표, 강신호 대표, 강병구 글로벌사업부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1000만원을 받았다. CJL Awards 스탬프에는 ‘오네’를 런칭한 브랜드성장팀과 미국사업 확대에 공헌을 한 미국 퀀텀점프TF 등이 수상했다.

강 대표는 기념사에서 “CJ대한통운 통합법인으로 출발한 지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라며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초격차역량으로 국내 물류시장을 선도해왔다. 최선을 다해준 전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물류

헤리티지를 이어가기위해 지난해 수립한 ‘ONLYONE PASSION 2025’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실현한 것 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CJ대한통운은 TES 기술을 기반으로 AI, 로봇, 데이터 등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 A/S 부문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평가

코웨이가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A/S 부문 1위에 선정됐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정수기 부문에서 7년 연속,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코웨이는 이번 서비스품질 조사에서 모든 항목이 업계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정확성과 전문성 항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코웨이는 30여 년에 걸친 서비스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최근 고객들의 높아진 위생 관리 니즈에 맞춰 고객이 제품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안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코웨이는 탱크형 정수기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 포토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 관리 후 정수기 내부 탱크 사진을 촬영하여 고객에게 전송해 준다. 고객이 제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자가관리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연평균 50% 급성장…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만들자”

배터리 얼라이언스

정부에 통합관리체계안 제출
폐기물 아닌 ‘재활용 대상’ 재정의
통합이력관리 ‘여권제도’ 도입제안

자동차와 배터리업계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업계가 제안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부처 논의와 관련 법률안 입법도 추진키로 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및 자동차회사는 물론,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에서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으로 부터 업계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업계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

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물/선도 거래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통업이나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

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고,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유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추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이에 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 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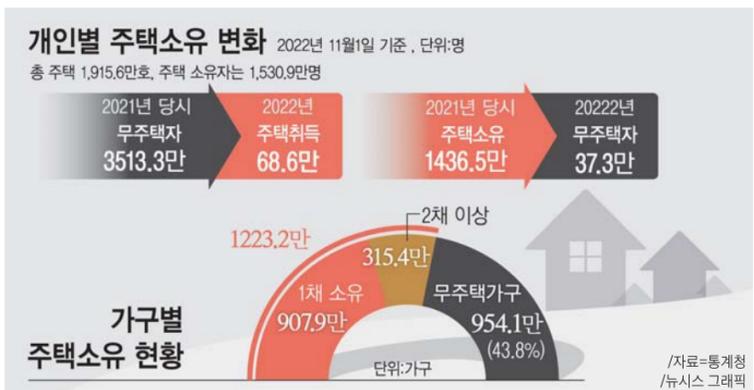
작년 69만명 ‘내집마련’… 매수심리는 하락

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통계
유주택자 된 사람 전년비 33.7% ↓
다주택자서 1주택자로 변경 21만명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무주택자였다가 작년에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7000명으로 2021년(103만6000명)보다 33.7% 감소했다. 이 같은 신규 유주택자 수는 2019년(83만2000명)에 줄었다가 2020년(98만 명)부터 2년 연속 증가한 바 있다. 3년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로 변경된 사람은 21만 명이었다.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4만6000호로 1년 전보다 1.2%(19만 호)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85.8%)로 2021년(86.3%)에 비



해 비중이 줄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424만2000호(86.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219만호(13.3%)를 차지했다. 부부 공동명의 등 공동소유 비중은 2019년에 12.5%, 2020년 13%, 2021년 13.2% 등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45.9%에 달했다.

주택 소유자는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22만명) 늘어났다. 다만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로 전

년(1.08호) 대비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주택이 없다가 신규 참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가 감소한 바 있다”며 “2022년에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줄어드는 등 변동 자체가 적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소유자 1530만9000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년보다 21만9000명 감소한 1303만5000명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85.1%를 차지해 0.2%포인트(p)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유럽연합 공급망실사법·ESG 동향 공유”

환경부,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며 “국내의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 소개 및 산업계 대응 방향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등이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은 아동노동과 현대판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사에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

후탄소정책실장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요르그 베네펜뒤르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독일 화학기업 헬름의 노버트 바움 부사장 등이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또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경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을 검토해 수출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업들이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기아 등과 온실가스 감축 MOU

농축산 부문 저탄소 생태계 전환 협력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기아, 신한은행, 탄소중립 솔루션기업 그리너리와 함께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사

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 사례”라며 “기아와 신

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축산 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영상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만든 펠릿 형태의 고체비료인 바이오차를 생산한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재예방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맞손

안전보건공단-SGI서울보증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 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은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이다.

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금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지급 및 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2023. 11. 22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기조강연: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강 연: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4~18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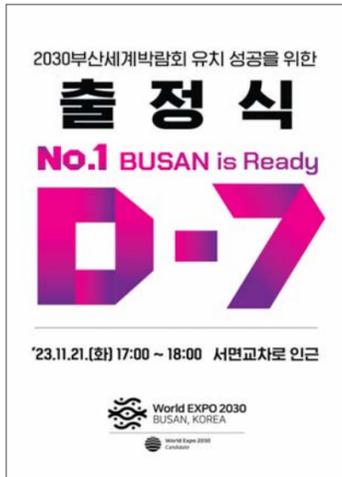
부산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규모 출정식·응원전 ‘열기’

개최지 발표 일주일 전
출범식으로 마지막 결의 다져
발표 당일, 응원전 마련도

“넘버원, 부산 이즈레디(No.1 BUSAN is Ready) 외쳐주세요!”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 7일 전인 21일과 당일인 2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부산시민과 함께 기원하는 대규모 범시민 응원전을 펼친다.

오는 21일 오후 5시 서면교차로 일원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 주최, 범시민유치위 시민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범여성추진협의회, 시민참여연합의 공동 주관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8



부산시가 오는 21일과 28일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응원전을 펼친다. /부산시

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서 진행될 마지막 2030세계박람회 유

치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발표가 있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부산시민의 유치 염원을 전달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인 기관,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성공 유치를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개최지 발표 D-7 행사다.

행사는 시민 천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5개의 거점 공간에서 진행되며, ▲오프닝멘트 ▲출정 퍼포먼스 ▲출정 의지 선포식 ▲유치 결집 퍼포먼스 ▲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상영 ▲D-50타임캡슐 개봉·낭독 ▲유치 염원 공연 등이 마련된다.

개최지 발표가 있을 28일 오후 8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 주최, 범시민유치위 시민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범여성추진협의

회, 시민참여연합의 공동 주관으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시민응원전’이 마련된다. 부산과 파리를 연결해 현지 반응과 투표 결과 등을 생중계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로 구성된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유치 염원을 현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나서주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추진력 삼아 우리시와 정부는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반드시 좋은 결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래불해수욕장 전경. /영덕군

영덕군

관광환경 개선에 국비 5억 확보

영덕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래불해수욕장과 괴시민속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2개 지점에 대한 관광환경 개선 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모엔 12개 자치단체 30개 관광지점이 참여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의령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의령군은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통한 근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21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령군은 의령읍 인근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서동행정타운 개발 등 하수량 증가에 따른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확정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국비 등 121억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처리량을 하루 5800㎥에서 6900㎥로 1100㎥ 증설하게 된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순천시

여름 여행지 만족도 전남 1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81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지에 대한 만족도와 휴가지로의 추천 의사 여부에 대해 ‘2023년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를 조사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영주시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참가

영주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홍보를 위해 ‘제18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 참가한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품·소재 분야 기업 130개 사가 참가해 250개 부스 전시 규모로 진행되며, 기계,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부품 및 금속·화학,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 분야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q7677@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 5.4兆 편성

전년비 4686억 줄어든 규모
보통 교부금 5714억 감소 원인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5조 4,541억 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조 9229억 원보다 4686억원(7.9%)이 감소한 규모이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 교부금 5714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합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32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내년도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기본 운영비, 무상급식비,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교육 급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미래를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사업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업무추진비 부서별 15% 감액, 국외연수 최소화, 외부 자문단 운영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 지원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라며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경산시, 대구도시철도 하양연장 역명 결정

부호경일대호산대역과
하양대구가톨릭대역 확정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14일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의 협력 사업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사업’의 신설역사명칭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727억원으로 2019년 착공해 2024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 7~8개월간의 철도종합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4년 말 정식 개통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를 추진 중이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가칭 H1 정거장을 제외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 금락리에 있는 H2 및 H3 정거장의 역명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명을 공모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공모에 신설역사가 위치한 하양읍 주민을 포함한 많은 경산시민이 참여했다. 시민들의 제안 역명 중 인근 대학교 명칭이 포함된 역명이다 수 있음에 따라, 경산시는 하양읍 이장협의회에 역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고, 2023년 11월 13일 개최된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했다.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명과 학교명이 혼합된 부호경일대호산대역(H2), 하양대구가톨릭대역(H3)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산(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딸기 재배 시설 하우스에서 농장주 임동만(39)씨가 폭설로 주저앉은 시설 하우스 위에 올라 눈을 치우고 있다. /뉴스

전남도, 겨울철 대설·한파 선제 대응

유관기관 협업 강화·취약계층 지원

전남도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12억여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제로 달성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유관기관 간 대응계획을 점검을 위한 협업 간담회를 전날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엔 전남도 13개 협업부서와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재해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폭설 시 고속도로 제설 활동,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전남경찰청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교통관리 계획수립 등 유관기관별 겨울철 재난 대비 계획에 대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수소 전기트램 실증운행 시승행사

올해까지 사업비 총 426억 투입

울산시가 14일 울산항역에서 ‘수소 전기트램 실증 운행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통한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울산시가 도입 예정인 수소트램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이재의 국회의원, 참여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트램 소개에 이어, 수소트램 출발 세러머니, 트램 시승 체험, 수소충전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승 체험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소트램이 탑승자 150여 명을 태우고 울산항역에서 삼비

널목까지 왕복 4km 구간을 달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청정에너지원 수소전기트램을 국내 최초로 울산에서 시승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울러 향후 도입되는 울산도시철도가 수소 전기트램으로 운행될 예정이라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수소트램이 대중교통으로 운행되는 세계속의 수소도시 울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은 울산시가 지난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며 올해 말까지 사업비 총 426억 원(국비 281억, 시비 20억, 민간 125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장병호 기자

주류업계, 연말 대목 겨냥... 맥주·하이볼 신제품 출시 봇물

롯데칠성 '처음처럼×솔의눈' 출시
맥주 '크러시'도 이달 중순 첫 선
하이트진로 '켈리' 성탄절 에디션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한정 출시
페르노리카코리아
'레드브레스트 15년' 선보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테라와 켈리. /뉴시스

주류업계가 모임이 많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컬래버 하이볼 제품 '처음처럼×솔의눈'을 출시했다. 소주 '처음처럼과' 솔의눈'이 섞인 것으로 최근 소주에 '솔의눈'과 탄산수, 레몬 등을 섞어 마시는 '솔잎주'가 SNS상에서 인기를 끌자 제품으로 출시했다.

500ml 용량 캔 제품이며 알코올 도수는 6도다. 이달 중순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흡술족과 술에 음료를 섞어마시는 MZ세대를 겨냥해 앞서 9월에도 '처음처럼×실론티'를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출시 6주만에 100만캔이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를 탄산음료, 주스 등에 혼합해 하이볼 형태로 즐기는



믹솔로지 트렌드를 반영해 신제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 맥주 제품인 '크러시'도 이달 중순부터 선보인다. 신제품으로 맥주 시장 점유율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크러시는 페일 라거 맥주로 알코올 도수는 종전 클라우드의 5도보다 살짝 낮은 4.5도로 출시한다.

롯데칠성이 맥주 신제품을 내놓는 건 2020년 '클라우드생드래프트'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연말 마케팅을 펼쳐 맥주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맞서 하이트진로는 맥주 '켈리'의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14일부터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크리스마스과 겨울을 상징하는 산타클로스와 눈사람 등을 더한 제품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맥주 '테라'의 싱글몰트 에디션도 한정 출시했다. 호주 최남단 태즈메이니아섬에서 자란 보리만을 사용해 10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화이트몰팅스' 한곳에서 제맥(몰팅·보리로 맥주용 맥아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한 상품이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도 카스의 새 광고를 선보이는 등 연말 마케팅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 연시는 각종 모임이 많아 주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어느 때보다 마케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스키 시장도 들쭉이고 있다. 페르

노리카코리아는 아이리시 위스키 '레드브레스트 15년'을 출시했으며, 바카디코리아도 최근 버번위스키 '엔젤스 엔비'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내에 선보였다.

골든블루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을 베이스로 만든 싱글몰트 하이볼 RTD 제품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출시하며 MZ세대 공략에 나선다. 이달 중순부터 일부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주류수입사들은 대규모 와인 할인 행사를 진행해 연말 수요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신세계L&B는 19일까지 전국 와인 앤모어 46개 매장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상품인 '샤또 무퐁 로질드 2011' '샤또 마고 2017' 등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와인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고, 신세계L&B가 2009년에 출시한 데일리 와인 브랜드 'G7'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아영FBC의 리테일 브랜드 와인나라는 11월 한 달간 '이달의와인' 5종을 선정하고 고객들을 위한 점포별 행사를 진행한다. 선정된 5종 '산타크리스티나 비앙코', '유원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페폴리 키안티 클래식', '프루노토 바르베레스코', '제나토 크레사소'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 지속가능성 어워드에서 기념촬영 중인 퍼스테니우스 ECCK 부회장(왼쪽)과 지민주 페르노리카 코리아 인사·커뮤니케이션 및 S&R 전무. /페르노리카 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 '골든스타' 톱3 기업 선정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 그룹의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3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의 '골든스타' 부문에서 톱3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대한 평가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정책 및 활동의 성과와 다각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골든스타' 부문의 톱3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페르노리카그룹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2019년 '2030 지속 가능&책임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이에 기반해 ▲환경보존 ▲인간 존중 ▲자원 선순환 ▲책임 있는 호스팅 활동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참전용사 800여명에 '빼빼로 감사키트'

'턴 토워드 부산' 행사 기념
독일 등 해외용사 가족에도 발송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지난 11일에 열린 '턴 토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를 기념하며 빼빼로가 포함된 감사 키트 800여개를 국내외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부산 남구, 부산지방보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유엔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턴 토워드 부산을 빼빼로데이와 연계해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에

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보훈 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턴 토워드 부산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국제 추모행사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해 2008년부터는 국가주관 행사로 격상돼 매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1월 11일에 진행되고 있다.

감사편지와 빼빼로가 포함된 키트는 올해 수교 기념 국가인 캐나다, 독일,

인도 3개국의 6.25전쟁 참전 해외 용사 가족 550여명에게 발송됐다. 기념식을 위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참전용사와 유가족, 외교사절, 방문객 등에게도 추가 전달했다.

4년간 총 약 2000명의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키트를 전달했으며, 감사 키트를 받은 참전용사 및 보훈 가족들이 편지와 인증사진을 통해 감동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패키지에 턴 토워드 부산 홍보 엠블럼을 적용한 기획 제품을 상시 판매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신원선 기자



지난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턴 토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에 참석한 김태우 롯데웰푸드 CSR마케팅팀장(오른쪽)이 참전용사에게 감사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스타벅스코리아 디스커버리 시즌2 진행

스타벅스코리아가 본격 사내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시즌2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전국 스타벅스 파트너를 초청해 대표이사와의 대화, 지원센터(본사) 투어, 스타벅스 아카데미 LAB 견학, 주요 특화 매장 방문 등을 진행하며 파트너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스타벅스는 파트너 참여 편의 향상과 규모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스타벅스 디스커버리 시즌2를 진행한다.

새로워진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개최 장소 다양화에 주안점을 뒀다. 기존에는 서울에 위치한 지원센터(본사) 위주로 행사를 열었다면, 지방 근무자를 고려한 전국 각지에서 행사를 진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구성에 다양성을 더할 계획이다.

시즌2 첫 행사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제주주에서 1박2일로 진행됐다. 해당 행사에서 손 대표는 전국 각 권역에서 고객에게 칭찬메시지를 많이 받은 파트너를 초청해 총 30명과 함께 이틀 동안 제주 지역 신규 오픈점인 스타벅스 '제주세화DT'점과 '더제주송당파크R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신원선 기자

“수험생, 빙스 3+1로 이용하세요”

CJ푸드빌, 외식브랜드 프로모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 빙스, 더플레이스, N서울타워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빙스는 수험생과 학생 대상 '돈워리, 빙스 해피! 샐러드바 3+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월 15일까지 수험생 또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4인 이상 샐러드바 이용 시 1인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문 전 2024학년도 수험표나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험생 또는 청소년 동반 시 테이블당 1회 적용 가능하다.

빙스와 더플레이스는 11월 한 달간 SKT T 멤버십 고객 대상 0 day(영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0'이 들어간 10일, 20일, 30일 총 3일간 T 멤버십 앱을 통해 이벤트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쿠폰 사용 시 빙스는 성인 샐러드바 40%, 수험표 제시 시 4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3분기 영업이익 1102억... 5% 증가

비용효율화 등 '본업 경쟁력 강화' 효과

이마트가 본업 경쟁력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마트는 14일 공시를 통해 지난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2억(약 5%) 증가한 11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 감소한 4조4386억원이다.

이마트 별도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이다. 이마트 측은 "물가 안정 기여 연중 프로젝트 '더 리미티드' 등 고객

관점의 '상품 혁신'과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점포 리뉴얼', 수익성 개선 노력에 따른 비용 효율화 등이 '본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노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전문점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 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94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누계 영업이익 285억원을 기록했다.

이외에 객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빛나 기자 vitna@

코스맥스·한국콜마, 인디브랜드 덕에 국내외 둘 다 잡았다

코스맥스 3분기 연결 영업익 333억
관광객 증가에 내수 성장 이끌어
한국콜마 매출액 전년비 9% 증가
중법인 올 영업익 흑자전환 성공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서 '고전'

화장품 제조업 기업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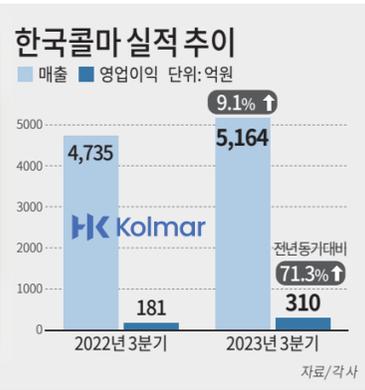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은 4583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333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68.7%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국내법인 내수 성장과 해외 수출 매출이 꼽히고 있다. 코스맥스 국내법인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39.3% 증가한 2880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121.5% 증가한 258억원을 기록했다.



화장품 업계에서 3분기는 비수기지만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시장의 활기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해외 수출에서는 인도네시아 매출액이 234억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6%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기존 고객사의 견조한 주문과 신규 고객 유입이 매출 성장의 원인이 됐다.



아울러 인디 브랜드 고객사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와 ODM 비중이 늘고 있는 점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업계는 해외 수출에 있어서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고객사들의 발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지난 2022년 대비 9% 증가한 516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대비 71.5% 증가한 310억원이다.

한국콜마는 국내외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인디 브랜드 고객사들의 발주가 견조한 가운데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성장한 1861억원, 영업이익은 26.0% 가량 늘어난 131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인디 브랜드들의 수요가 높아져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해외 매출도 순항 중이다. 중국법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3% 증가한 48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흑자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밖에 북미법인의 경우 매출 218억원, 영업손실 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 늘었지만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콜마의 자회사 연우도 올해 3분기 매출액은 612억원,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각각 9%

와 13% 증가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콜마는 화장품용기 제조회사인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와 관련 한국콜마 관계자는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경영효율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3분기 기준 LG생활건강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1조7462억원, 영업이익은 32.4% 줄어든 1285억원이다. 중국 소비 시장 침체로 면세 및 중국 현지 매출이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도 3분기 매출이 9633억원, 영업이익이 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12.7% 줄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오리온, 3분기 영업익 1407억... 신제품·영업 기반한 성장세

매출액 전년비 3.4% 올라 7663억
4분기, 파이·비스킷 등 공급량 확대
온라인 전용 제품 출시 등 영업 집중

오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오른 7663억원, 영업이익은 15.6% 성장한 1407억원을 기록했다

14일 밝혔다. 한국 법인 매출액은 15.3% 성장한 2720억원, 영업이익은 29.2% 성장한 429억원을 달성했다. 사측은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쳐 '닥터유' '마켓오네이처' 브랜드를 비롯해 전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에도 차별화된 신제품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수요 증가에 발맞춰 파이, 비스킷 등 주요 제품의 공급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 제품.

/오리온

생산효율성 향상 및 제조원가 관리에도 만전을 해 매출과 이익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국 법인은 위안화 환율 영향으로 매출액은 1.8% 감소한 3296억원, 영업이익은 22.0% 성장한 727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간접영업체제 개선을 지속하고 창고형매장, 온라인 전용 제품

을 출시하는 등 성장채널 영업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국 최대 명절인 내년 2월 '춘절' 선물 수요에 대응해 파이류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을 선제적으로 펼치는 한편, 비건 육포 등 신규 카테고리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베트남 법인은 매출액이 4.0% 성장한 1176억원, 영업이익은 4.6% 성

장한 219억원을 달성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젤리, 쌀과자, 양산 빵 등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7조원 규모의 현지 유음료 시장에도 신규 진출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최대 명절인 '땃'을 대비한 선물용 기획제품을 출시하여 대대를 선점하고, 대량 구매 수요가 큰 B2B(기업 간 거래) 판매도 주력할 방침이다.

감자스낵, 파이 등 기존 제품의 분포 및 진열을 확대하는 한편, 호치민과 하노이 공장의 증축, 증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러시아 법인은 루블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매출액이 22.2% 감소한 485억원, 영업이익은 36.6% 감소한 67억원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JW메디칼 '이동형 X선' 장비 출시 의료환경서 편의성 추구

JW메디칼이 의료진의 작업 환경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JW메디칼은 미국 케어스트림 헬스의 'DRX-라이즈(Rise)'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엇보다 케어스트림의 'DRX-라이즈'는 기존 케어스트림의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DRX-레볼루션' 대비 19% 가벼운 450kg대의 무게로 편의성을 강화했다.

'DRX-라이즈'는 최첨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짧은 충전 시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듀얼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두 개의 화면을 통한 영상 진단 작업이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LF 보리보리, 육아용품대전 '쑥쑥데이'

식품·리빙 등 비패션도 할인 선배

LF 트라이씨클의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가 육아용품대전 '쑥쑥데이'를 열고 오는 16일까지 관련 상품을 할인한다고 14일 밝혔다.

쑥쑥데이는 매월 인기 육아용품을 엄선해 개최하는 최대 할인 행사로 출산을 앞둔 가정부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육아에 필요한 상품을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보리보리는 이 기간 식품, 리빙, 도서, 완구 등 비패션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할인가로 선보인다. 또, 이들 상품에 대해 최대 8% 추가 할인되는 장바구니 쿠폰 2종을 증정하며, 네이버페이로 9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4000원의 N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원데이 특별 혜택가' 코너에서는 매일 달라지는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일자별로 ▲14일 페넬로페 '썬썬 플러스' 기저귀, 루솔 '진한 배도라지즙' ▲15일 무스텔라 '이드라베베 3종 세트', 퍼기 '이중필레 이유식큐브' ▲16일 피셔프라이스, 베베쿱 '처음먹는 빼빼롱빵' 등이 준비됐다.

이와 함께 LF 보리보리는 육아로 인한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난감 나라라 똑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 페이지에 아이의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입력하고 장난감을 신청하면 아이의 월령을 고려한 맞춤 장난감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에이피알, 3분기 호실적... 역대최대 기록

올 매출 3718억, 영업익 698억

글로벌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이 상장을 앞두고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2023년 3분기 매출 1219억원, 영업이익 21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3718억원, 영업이익 698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 37.9%, 영업이익은 277.6%가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4개 분기 연속 매출 12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초과 기록도 달성했다.

실적의 원동력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37.2%가 성장한 뷰티였다. 특히 메

디큐브 에이지알의 뷰티 디바이스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66.4% 성장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년 동안 에이지알은 약 60만 대의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했다. 이에 비해 올해에는 3분기 만에 75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린 것이다.

해외 시장의 호조를 보였다. 뷰티 디바이스가 전체적인 해외 매출을 견인하며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52.5% 성장한 561억원의 분기 해외 매출을 기록했다. 1분기에 381억원, 2분기에 445억원의 해외 매출을 기록했던 에이피알은 지난 2022년 전체 해외 매출(1437억원)의 96.5%를 3분기 만에 달성했다.

/이청하 기자

롯데시네마 '수능마친 청소년 모여라' '너! Teen이야?' 이벤트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청소년 회원 대상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 대상 및 만 13~18세 회원 대상 '너! Teen이야?'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영화 7000원 관람권과 팝콘M+음료M이 결합된 'Teen 콤보'를 3000원에 이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 특히 'Teen콤보'는 정가 대비 약 63% 할인 혜택이 적용됐다.

또한 '너! Teen이야?'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 대상으로 '카카오 선물하기' 5만원 쿠폰을 6명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으로 제공한다. 쿠폰 다운로드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S 김호연 작가
무대 시리즈 3

2023 JIWOO PRODUCTION PRESENTS

PLAY

"Rivals in love"

연 戀 적 敵 敵 적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의
아이러니 여행기

2023.10.04 - 2023.12.31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원작|김호연 소설 <연적> |프로듀서|황기현 |연출,각색|홍현우 |조명디자인|장영섭 |음향디자인|안형록
|음악감독|정다운 |영상디자인|김태운 |무대디자인|이주은 |제작감독|전예정 |조연출|손연주 |포스터디자인|그라운드워크
|출연|김준희 김규도 김상균 문원주 김동준 서원호 여우린 김단울 장혜민
|주최·제작|극단지우 |기획|제이엘컴퍼니, (주)브라더후드 |후원|나무옆의자
|예매|인터파크 1544-1555 |문의|02-332-4902





오세훈 “LG트윈스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연고 구단인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해 서울광장에서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동구장 건설시 LG와 두산 베어스가 사용할 대체 구장과 관련해 오 시장은 “건설 주체인 한화컨소시엄, 구장 사용자인 LG, 두산, 한국프로야구 운영기구인 KBO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창업진흥원, 대전현충원서 참배·묘역정화 봉사활동

창업진흥원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노사가 함께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와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4일 창진원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3년째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업진흥원



금융투자협회, ‘사랑의 김치 Fair’ 김장행사 진행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금융투자업계(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사) 및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13회 사랑의 김치 Fair’ 김장행사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했다. 총 5만Kg의 김치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금융투자회사가 후원하는 복지시설 150여 곳에 전달됐다. /금융투자협회



경동나비엔, 포스코와 친환경 보일러 기부

경동나비엔이 포스코와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14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친환경 보일러 나눔 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3년간 280여 대의 보일러를 기증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가 지원 대상을 찾아 콘덴싱보일러 1대를 기부하면 경동나비엔도 1대를 매칭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경동나비엔



우덕재단, 공모전 수상자에 총 2500만원 장학금 전달

우덕재단이 미래 건축가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한일그룹은 우덕재단이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에서 ‘제2회 우덕 건축가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700만원 등 수상자들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일그룹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지금은 잠잠해진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깻잎 논쟁에 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원조는 ‘한 연예인 부부와 그 부부가 다니는 친구인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여러 겹의 깻잎에서 한 장을 떼지 못하고 강강대는 걸 도와주려고 남편이 깻잎을 잡아주었다. 이게 아내가 화낼 일이나 아니냐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닦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엉뚱하게도 상황이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한 일본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히라가나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일본인들과의

일본에는 깻잎 논쟁이 없다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일본인과 생선구이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다. 잘 구워진 임연수와 고등어가 식탁에 올랐고 균침을 흘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생선구이를 좋아해서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것이 능숙했지만 그 중년의 신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한참을 생선 가시와 씨름하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잡아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젓가락을 치우라고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정색하고 말을 하니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내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자기 음식을 집어서 그런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일본에서는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식사 예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본에는 그들의 특이한 식사 예절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불편하다고 느낀 것처럼 거의 모든 음식을 손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음식점에서도 그 젓가락을 가로로 차려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젓가락을 세로로 두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로로 놓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있어 자기의 영토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식사 예절은 아주 오래전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보니 일본 문화 중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바로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의 경기 규칙이다. 스모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경기장 밖으로 발이 나가거나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는 쪽이 패배하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침략한 외부의 침입자를 쓰러트리거나 몰아내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가 우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식사 예절에서만 아니라 전통문화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깻잎 논쟁으로 돌아와, 내 선택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본에서는 깻잎 논쟁과 같은 이유로 연인이나 부부가 다툰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깻잎을 때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이미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전쟁 선포나 다름없으므로 오히려 둘의 싸움을 말려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일본인들은 깻잎을 먹지 않으니 애초에 깻잎 논쟁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삼성 임직원, 2주간 ‘나눔위크’ 펼쳐

관계사 23곳, 임직원 10.7만명 참여

삼성 임직원들이 ‘나눔위크’로 사회와 나눈 성과를 공유했다.

삼성은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말 수원사업장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됐다.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위크’를 결산하고 나눔을 확산시키는 의미로 기획했다. ▲나눔위크 기간 동안 봉사와 기부, 헌혈에 참여한 삼성 임직원들의 노력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나눔키오스크 기부금 전달식 ▲삼성 임원들의 기부금으로 제작한 헌혈버스 전달식 ▲우수 헌혈 참여자에 대한 유공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및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등 봉사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이 참석해 함께 기념했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의 가족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나눔키오스크기부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들은 행사에서 큰 희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삼성은 헌혈버스 4대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삼성 임원들은 지난해부터 특별격려금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100여억원을 모금해 매년 4대씩 헌혈버스를 기증하고 있다. 총 40대 기증을 목표로 한다.

대한적십자사도 삼성전자 DS부문 조상연 프로에 누적 헌혈 100회 이상자에 주는 명예장을 수여하는 등 헌혈 유공패 4개를 전달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위크 기간



14일 삼성전자 조상연 프로가 누적 100회 헌혈을 달성한 공로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에 참석해 헌혈 유공패 ‘명예장’을 받은 뒤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

전국 사업장 지역 사회에서 대면 봉사는 물론 나눔키오스크를 이용한 일상속 기부, 또 헌혈 캠페인에도 적극 참가했다. 참가자만 관계사 23곳에서 임직원 10만7000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창립기념일 대면봉사도 올해 재개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수백개 봉사팀이 봉사와 인근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각자 소속된 팀이나 파트단위로도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사업별 장기도 살렸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플로깅과 아동 SW 코딩 교육 등, 구미사업장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건강검진기 도우미 활동을, 광주사업장은 광주고려인마을 모자이크 벽화 활동을 펼쳤다.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에서 잠수동호회 주도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남은 섬유 원단으로 반려견 등 장난감을 만들었다.

대표이사들도 함께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11월 6일 경기도 성남 ‘안나의집’에서 노숙인에 배식하고 식당을 청소했다. 경계현 사장은 11월 9일 경기도 용인 ‘희망별墅’에서 장애인들과 쿠키를 구웠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그룹, 아트카로 부산엑스포 홍보

APEC 정상회의 기간 투입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특별 제작한 아트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누비며 막판 힘을 신는다.

현대차그룹은 11~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아이오닉5, EV6, G80 전동화 모델 등으로 제작한 아트카 14대를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 정상과 외교·통상 장관, 경제계 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부산의 비전과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그룹이 제작한아트카에는 광안대교와 갈매기 등 부산의 주요 상징물을 표현한 그라피티 작품과 ‘BUSAN is Ready’ (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슬로건이 랩핑됐다.

현대차그룹은 APEC 정상회의가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인 아이오닉 6(왼쪽부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5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는 모습. /양성운 기자 ysw@

열리는 행사장 인근과 현지 주요 명소에서 아트카를 운행하며 각국 주요 인사들은 물론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임을 알린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랜드마크인 대형 쇼핑몰 ‘피어 39’ 메인 광장에서 아트카를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의 아트카는 부산 엑스포 심포지엄이 개최된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투입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 ◆ 한국수자원공사 △ 상임감사위원 이삼규
- ◆ 하이투자증권 <신규선임> ◇ 전무 △ 리스크관리본부장 신현진 ◇ 상무보 △ 경영전략본부장 류시웅
- ◆ KBS △ 인적자원실 인사기획부장 박종일 △ 인적자원실 인사운영부장 서정주 △ 인적자원실 인재개발원장 이충형 △ 성평등센터 성평등부장 강운규 △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장 이재원 △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장 최진일 △ 전략기획실 전략기획국 정책기획부장 권성범

부고

- ▲ 김정숙(향년 92)씨 별세, 이만호·이범호·이성호·이영숙·이순호·이영선씨 모친상, 이명희·김영선씨 시모상, 최용환·남상봉·전수용(파이낸셜리뷰·시사브리핑 발행인)씨 장모상 = 14일 오전 2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목련원. 041-279-0158
- ▲ 오병래씨 별세, 양기생(무등일보 경영관리본부장)·진기(광주 고려고 교사)·송희씨 모친상 = 14일 오전 8시,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62-227-4000

‘집들이’ 추억



이규성 의
전원에 산다

지난달 말 마을 단체여행 버스에서 마을 총무는 돈봉투 하나씩을 낸 찬조자의 이름을 불렀다. 매년 여행 경비 중 일부는 찬조로 이뤄진다. 오랜 관습이다. 전입 초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찬조금이 솔찬했다. 심지어 기백만원이 넘는 찬조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에 공장을 지은 업체들이 몇 십 만원 가량 마을에 회사하기도 한다. 우리 마을엔 생활공예품을 만드는 기업, 의료기기업체, 골판지 생산업체, 가구공장, 마늘장아찌를 만드는 공장, 소풍·닭똥을 발효해 퇴비를 만드는 업체, 피자공장 등 10여개가 있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래도 전입·특근할 정도로 활발하다. 인근안거리 한식뷔페식당 세군데에 저녁 시간에도 노동자들이 북적이는 걸로도 대변 알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야외회에는 마을의 한 가정에서 100만원, 또 한 가정에선 20만원이라는 찬조금이 나와 모든 이들이 의아해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상치

못한 찬조금에 놀라자 총무는 20만원 찬조금의 사연을 들려줬다. 이날 두사람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몇해전 마을로 이사온 할머니의 딸이 첫번째다. 딸은 50대, 서울에서 산다. 그녀가 찬조한 까닭은 그랬다. 어머니와 매일 마을노인정에서 들은 얘기에, 사연들로 한 시간 이상 전화를 나누다보니 아예 여기가 고향같아서 이번엔 꼭 가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얘기를 마치고 노래도 두곡이나 불렀다.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고 앵콜을 요청한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를 환영한다는 의미 일게다.

다음으로 100만원을 찬조한 이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카센터 사장이자 40대 중반인 그는 내가 이 마을에 전입할 당시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서비스회사에 들어가 정비를 익혀 마스터, 명장 등의 칭호를 얻을 정도로 경력을 쌓았다.

그가 얼마전 집을 개축, 입주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 끝에 집들이 대신 마을에 찬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6년 전에 결혼, 샌드위치 패넬로 지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다 마침내 징피패넬 벽체와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얹은, 번듯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샌드위치 패넬로 지어졌을 때는 창고같이 볼품없고 작아서 신혼살이도 만만치 않았을거다. 40대는 극히 드물어 마을사람들이 무척 아끼는 부부다. 게다가 아이 낳고 새집 짓고 인근에 카센터를 차려 여전한 가정을 이뤘으니 마을 사람들이 칭송할 만도 했다. 그러면서 집들이 대신이라고 찬조금도 내놓았더니 더욱 반겼다.

잣나무골에 들어와 몇 번의 집들이를 경험했다. 출장뷔페로 잣나무골 입주자들과 회사원들을 불렀던 앞집, 작년에 룰게익과 사랑 한 봉지를 돌린 뒷집, 마당에 노래방기기를 차리고 국밥을 대접했던 옆집 등 새삼스레 ‘집들이’란 단어에 유독 뜻깊은 날이기도 했다.

30여년전 집들이, 돌잔치가 물린 적 있다. 라이프스케줄 상 친구들이 막 결혼하던 때다. 그때 집들이하러 상계·중계동, 상일동, 잠실 등 저층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동네를 많이 찾곤 했다. 그 신도시 이후 집들이는 거의 잊혀진 말이 됐다. 이번 야외회에 번쩍 귀에 꽂혔다. ‘집들이’, 그래 그런 말이 있긴 있었지. 잊혀진 추억, 단어를 마을사람들이 되찾아준 날이다.

/peace@metroseoul.co.kr

‘개인정보 유출’과 방지대책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이해도 안되고, 양도 많아서 그냥 덮어뒀어.” 부모님은 법원에서 내앞으로 무언가 보내왔다면서 뜯겨진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무거운 서류 무게만큼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가 생각하던 찰나 문득 11년전 사건이 떠올랐다. KT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였다.

2012년 KT는 2월부터 7월까지 모 IT업체 직원으로부터 홈페이지를 해킹당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000만건이 유출됐다.

당시 대학생이던 기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것만 보고 사건을 잊었다. 왜 잊었는지 되짚어 보

자면 우선 먹고사느라 바빴고, 위자료 여부를 떠나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확인받았다면 결론은 당연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재판이 정반대로 흘러갔다. KT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KT의 정보 유출에는 책임이 있지만, 당시의 정보보안 기술 수준으로는 KT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이 같은 결론은 현 시점에서만 봐야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 당시 기업은 최선의 정보 보안 기술을 토대로 상품을 판매했고, 소비자는 이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 기술 수준이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낡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보안기술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했기에 그에 맞는 책임을 져

야 한다는 의미다.

10여년간 끌어온 대법원의 판결이 아쉬운 이유는, 나의 판결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안일한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답은 ‘관리 실수로 인한 유출’이었다.

범죄기술은 늘 기존의 기술보다 한발 빠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여러개의 리딩방 문자, 피싱사기 문자를 받는다. 향후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에 챗GPT를 더한 피싱도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눈가리고 아웅아닌 실질적 대책, 법안이 필요한 때다.

/yul115@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음 10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나가야 할 터. 48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60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72년생 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84년생 두루 배려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 소** 37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49년생 매매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61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73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잘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85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 호랑이** 38년생 배우자의 의견존중을. 50년생 치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날을 잡도록. 62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74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86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 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 토끼** 39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51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63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달려간다. 75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함. 87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 용** 40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52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64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엄 쉬엄 일부터 해 나가보라. 76년생 태증 교육은 언행부터 신중히. 88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 뱀** 41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53년생 낙락장송(落葉長松)이 옛말이던가. 65년생 세상이 각박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77년생 카페에서 한 잔의 여유로운 커피를 마셔보자. 89년생 영업은 외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 말** 42년생 가을 매미의 시끄러운 소리처럼 주변 소란. 54년생 조상님 제사에 참석하도록. 66년생 봄에 꽃피 무렵이면 비가 많이 온다. 78년생 계획 없는 이직보다는 인내해야. 90년생 높은 곳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 양** 43년생 가족이 모여서 소란스럽다. 55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67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79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91년생 저금 나눠주고 동가식서사속하지 않도록.
- 원숭이** 44년생 분배는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도록. 56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68년생 희망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80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92년생 자고 나도 피곤하니 쉬 주도록 할 것.
- 닭** 45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57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69년생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상님 은덕. 81년생 공부가 싫다면 기술을 연마하라. 93년생 산일에 거미줄처럼 얽는다면.
- 개** 46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뼈다귀를 산다는 표현. 58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70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82년생 일이 순조롭다. 94년생 바쁜 가운데 틈을 내서 부모님 농사일을 돌보라.
- 돼지** 47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59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71년생 오후에 문서 계약. 83년생 일이 많아도 기쁨. 95년생 산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듯 당시 않은 데 가서 영똥한 것을 원한다는 상산구어(上山求魚).



김상회의四季 일상이 기도이자 수행

기도를 빼놓고서는 그 어느 신앙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기도의 위 신력과 체험은 모든 종교의 신앙인마다 간증하게 한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 지난 10월 중순에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감추사와 고성 건봉사를 다녀온 바 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신도분들과 함께 하는 산행기도 순례이기도 하다. 특정 지역으로 기도를 다니지 않아도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듯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십 분씩이라도 기도를 생활화하면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삼배를 올리고 마음에 닿는 경귀 한 구절이라도 염송하며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기도이다.

아니면 오 분이라도 법구경 한 구절을 읽거나 진언이나 불보살님들 명호를 염송하는 것도 기도다. 취침 전에 잠시 숨을 지켜보며 오감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는 것도 기도이자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뭔가 근심이나 걱정이 있고 일상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면 작정 기도라 하여 삼칠일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관음기도나 지장기도 등을 올리는 것도 전통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힘이 있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듯이 알게 모르게 선한 기운의 조력을 받는 일이 생긴다.

기도는 그저 내려놓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하심한다고 하는 것이다. 바라는 바를 우선 접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그렇게 기도는 가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 신력이며 이는 필자만의 얘기가 아니다. 직관과 통찰이 열리는 조사들이나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바다. 지장경에도 기도를 올리는 대상에게는 3할의 이익이요, 기도를 올리는 사람에게 7할의 이익이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도는 공덕과 가피가 크다는 의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1						
		5		4				
9				3		5		
		2	7	6				
6								9
			3	1	2			
	5		4					2
			1		3			
					6	4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9	2	6	8	8	2	1
2	8	8	9	2	1	6	9	7
2	1	6	9	8	7	2	5	8
8	9	2	1	8	9	7	6	2
6	2	9	2	7	8	8	1	9
1	8	7	6	9	2	2	8	9
7	9	8	8	1	2	9	2	6
9	2	1	7	2	6	9	5	8
8	6	2	8	9	9	1	7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414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권 4법”으론 역부족... 아동학대법 등 추가 개정해야

전국 교사 7만명 법 개정 요구 서명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불안감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 필요 학교폭력 사안, 경찰 이관 요구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말라며 전국 교사 7만 명이 상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예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중간 집계를 한 결과, 7만4613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특히 전국 1만여 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개정 교권 4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교원들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고,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 민원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

감 의견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 사항이다.

정 회장은 “교사는 교육권을 온전히 보호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다시 응답하길 호소한다”라며 “교총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총력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국가시험에 토익 인정기간 5년으로 늘린다

공인어학시험성적 기간 확대 취업준비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청소년 도박 급증...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서울시교육청, 수능 이후부터 실시 신청학교 120여곳 오프라인 교육

서울시교육청이 수능 이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라 마련된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관내 초·중·고교 1332곳 중 신청한 학교 120교 내외를 선정해 이뤄진다.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등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지며 학생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강사 50여명이 학교에 매칭돼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할

용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교사가 도박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박예방교육치유원의 온라인 학습콘텐츠도 모든 학교에 제공한다.

온라인 콘텐츠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15개 과정 및 5종의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한 에듀라인 콘텐츠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근절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찰·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돈의문2구역 심의 통과... 총 228세대 공급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을지로3가 10지구 재개발도 심의 통과 최고 21층 공동주택, 근린시설 건립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을지로3가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을 통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3개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또 ‘을지로3가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3가)’으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일대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김현정 기자 hjk1@

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총력’

TF 구성해 차별화된 공모신청서 준비

인천광역시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인천시는 시의회, 군·구, 유관기관 등 42명이 참여하는 ‘APEC 인천 유치 지원 TF’를 구성해 체계

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는 물론, 인천 유치의 당위성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공모신청서를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청년·대학생·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의 온라인 홍보 ▲유치 홍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카드 뉴스 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주한 공관장 초청 간담회 및 팸투어 ▲시민(단체)의 릴레이 지지 ▲KT·인천국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인천시는 국제회의 유치 전문대행사를 선정해 유치 성공 전략 방안 마련에 힘 쏟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외교부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현장실사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1 | 해질 / 17:22

11월 15일 (수) 음력 : 10월 3일

수도권 날씨 2 ~ 1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1, 동두천 -1/12, 가평 -2/12, 파주 -2/12, 서울 2/13, 인천 3/12, 수원 3/12, 양평 -1/12, 용인 3/12, 평택 0/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비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인들, 내년 말 인플레이션 둔화될 것 예상”
▲美 “미중 정상회담서 대만 평화 구상”
...이·팔 교전중단 확대 촉구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후 부채 10조원 넘게 증가
▲우크라이나 지원 발목잡는 헝가리, 자국은 행 ‘전쟁후원자’ 영구 삭제 요구



▲日記사, 실리콘밸리서 ‘세일즈 외교’...스타트업 등 對日투자 요청
▲日재무상, 올해 최저치로 떨어진 엔저에 “만전의 대응” /사진 뉴시스



재택 줄이는 산업계
거점 오피스로
효율성 높인다
03



Life

주류업계
연말 대목 겨냥
신제품 출시 봇물
나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린 '비운의 왕' 평화로운 숲 속에 잠들다



1



2



3

1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그의 둘째부인 선의왕후 어씨가 잠든 의릉. 2 소나무 숲에 심어진 향나무. 3 의릉 정자각.

/김현정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는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과 그의 둘째 부인 선의왕후 어씨의 능인 '의릉'이 있다. 왕의 무덤은 경종이 세상을 뜬 1724년 양주 중랑포 천장산 언덕에 조성됐고, 왕비의 봉분은 선의왕후 어씨가 승하한 1730년 의릉 동강 하혈에 만들어졌다. 아버지 숙종과 이복동생 영조의 재위 기간이 각각 45년, 52년으로 긴 것에 비해 경종은 왕좌를 차지했던 시간이 4년으로 짧다. 임금으로 있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이렇다 할 치적을 쌓지 못했고, 그래서 조선 왕들 중에서는 존재감이 미약한 편이다.

되살아나는 서울

148 성북구 '의릉'

◆특이한 형태의 봉분, 왜?

지난 12일 오후 의릉을 찾았다. 의릉은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20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8번 출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방향으로 1km(도보 15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매표소에서 1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표를 받은 뒤 의릉 안으로 입장했다.

왕릉에는 황금빛 잔디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정자각으로 향하는 길 좌측엔 향로(제향시 향과 축문을 들고 가는 길)가, 우측엔 어로(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가 놓였다. 왕이 된 기분을 만끽하며 어로를 따라 정자각으로 갔다. 정자각은 건물 정면이 아닌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게 돼 있었다. 참배자가 정자각 뒤 봉분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게 동쪽으로 진입해 서쪽으로 나오게 설계한 것인데, 왕릉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신분 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정자각으로 오르는 계단이다. 좌측 계단은 구름무늬와 북 모양의 둥근 돌로 꾸며졌고, 우측은 평범한 모양이다. 화려하게 치장된 왼쪽 계단은 임금의 훈령이 땅에서 구름을 딛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날 의릉을 찾은 한 꼬마는 부모가 좌측 계단으로 가는 것을 온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 경종 잠든 곳 정치 대립 가운데서 고달픈 삶 살아 즉위 4년만에 병세 악화로 세상 떠나

중앙정보부 들어서며 왕릉 훼손 심해져 1996년, 복원공사 통해 시민 품으로 전통수종 식재, 금천교 등 제모습 갖춰

몸으로 저지했다. 아이는 '이 계단은 조상의 훈령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보행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푼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로 가면 안 돼'라고 말했고, 엄마와 아빠는 그 모습이 귀여운지 깔깔거리며 웃었다.

정자각 뒤로는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의 능이 보였다. 왕과 왕비의 능을 같은 언덕에 조성할 때는 옆으로 나란히 놓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릉은 한 언덕에 위아래로 배치한 '동원상하릉' 형태로 만들어졌다. 능혈의 폭이 좁아 왕성한 생기가 흐르는 정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두 개의 능 가운데 삼면에 담장이 둘러진 위의 봉분이 경종의 것이다. 곡장이 없는 아래의 무덤엔 선의왕후가 잠들었다.

왕과 왕비의 봉분 모두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설치했다. 의릉에서는 장명등(어두운 사후 세계를 밝히는 석등), 혼유석(훈령이 노니는 곳), 석양(사악한 것을 물리

치기 위해 봉분 주위에 두는 돌로 만든 양), 석마(문석인과 무석인의 옆이나 뒤에서 있는 말 형상의 돌), 석호(능을 수호하고자 봉분 주변에 놓는 돌로 만든 호랑이), 문석인(관복을 입고 능 주인을 보좌하는 인물상), 무석인(갑옷을 입고 능 주인을 호위하는 인물상) 등을 볼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경종의 능침에 배치된 망주석 세호의 경우 왼쪽은 위를, 오른쪽은 아래를 향하고 있으나, 선의왕후의 능침은 반대로 조각됐다"며 "특히 경종의 능침 무석인의 뒷면에는 짐승 가죽을 나타내기 위해 꼬리가 말린 것을 조각했고, 선의왕후의 능침 석호는 꼬리가 등 뒤로 올라가게 하는 등 재미있게 표현돼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로운 고요가 깃든 왕릉

의릉에 모셔진 경종은 '비운의 왕'으로도 불린다. 숙종의 맏아들인 경종의 어머니는 희빈장씨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게 발각돼 죽임으로 내몰린 장희빈,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대립 등 정치적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맘고생이 심했던 왕은 즉위 1년 만에 이복동생 연잉군(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했다. 경종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병세가 악화돼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시끄러운 삶은 죽어서도 계속됐다. 1962년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면서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이 생기고, 돌다리가 만들어지는 등 왕릉 훼손이 심해졌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고 서초구 내곡동으로 터를 옮기면서,

일반의 출입이 금지됐던 의릉이 1996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의릉은 2003~2005년 외래수종 제거, 전통수종 식재, 인공연못 성토, 금천교 복원 등 능제복원 정비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날 오후 의릉을 찾은 한 연인이 투닥투닥 귀여운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한 개의 단어로만 이뤄진 실용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가지", "어딜?", "집에", "벌써?", "추워!" 남자가 "아니 본 게 없는데..."라며 입을 삐죽이자 여자는 "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들어가!"라며 화를 버럭 냈다. 그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야"라고 말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작은 실랑이를 하는 커플을 뒤로 하고 숲길로 들어섰다. 소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향나무를 발견했다. 나무는 비락을 맞은 것처럼 두 갈래로 짝 찢어져 보랏빛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맑고 고운 새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삼아 산책로를 한 바퀴 걸어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왔다.

이곳에는 '제7회 전국학생 성북미술대전'의 수상작이 전시돼 있었다. 의릉의 전경을 문크의 화풍으로 재현한 '경종의 열정',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관람객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경종과 선의왕후를 그린 '의릉에 온 사람', 정자각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묘사된 '친구와 함께 양을 타고 떠나요' 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는 11월15일까지.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피겨차준환, 발목 부상으로 그랑프리 5차 대회 기권
▲ 부상 회복 안세영, 日 국제대회서 복귀전 치른다 /사진 뉴시스

▲ 수아레스, 우루과이 대표팀 복귀...메시와 맞대결
▲ 손흥민, 외신 선정 '역대 EPL 최고의 선수 50위' 기록



▲ '10월 전 경기 공격포인트' 황희찬, 울버햄튼 10월의 선수
▲ 中 축구대표팀 감독 "한국 세계적 수준...우리에겐 큰 도전" /사진 뉴시스



‘도전’의 힘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LG는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지난 29년의 여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2023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도전의 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